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9~10/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매일108배 신자비도량 참법	행복문화연구소	붓다스쿨	6	무비스님의 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니까야 강독2(초기불전006) 교학과 수행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4	한글 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10	광우스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	광우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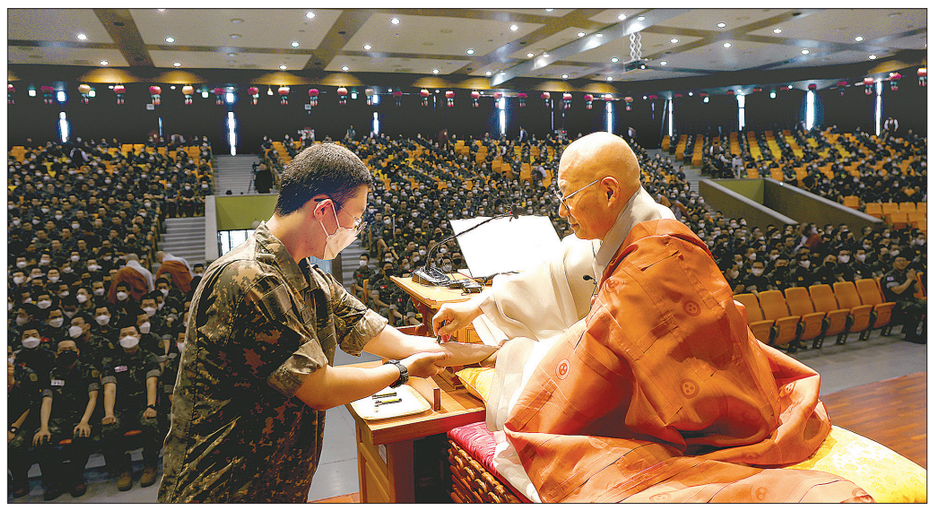
책세상

한국 군승제도 나아갈 방향 살피다



한국 군승제도 연구
보경 함현준 지음
운주사/ 2만2000원

30년 군승 활동한 함현준 법사
대승불교 관점서 군승制 고찰
현재 군승제도 발전 방안 모색
"조계종 중심서 범종단 확대를"



지난 6월 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군장병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장병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 사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님이 군대로 파송돼 군인 신분으로서 군내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군승제도는 종교적으로 매우 특별사례다. 국가 위기 시 분연히 들고 일어나 외적에 맞섰던 의승군 전통이 한국불교사에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자비행이었다. 군승이라는 제도가 보편화된 것은 현대 이후다.

〈한국 군승제도 연구〉는 30년간 군종장교로 활동했던 보경 함현준 법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승들의 정체성과 그 한계는 무엇이며, 군불교와 한국불교의 성장을 위해 군승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등, 한국의 군승제도 전반에 대해 역사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를 담아냈다.

군승제도를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과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입장과 논의에 있어 차이가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군승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의 흐름과 시대적 대응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대승불교의 교리적 기반과 군승들의 실제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교리적 정합성(Doctrinal Coherence)'에 주목한다. 이는 군 불교활동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현대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살도의 실천과 중생구제의 이상이 군 환경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받아들인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스님이 종군하여 활동하거나 정치, 군사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승병의 활동 사례를 찾아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군종제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군종활동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스님과 현역 군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군승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그 활동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가 거의 처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 군승제도가 한국불교사에서 보이는 승군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역사적 전통에서 드러나는 승군, 혹은 승병들의 활동과 현재의 군승제도는 그 맥락과 정체성을 달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군승제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다. 군승활동의 역사와 전통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승불교의 흥기와 군승제도의 관계를 고찰하여 역사 속 승군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그 영향으로 대두되는 호국불교 이념과 전통을 조명한다. 그 결과 군승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대승불교의 이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또한, 30년을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한 저자의 경력을 살려 군승제도의 발전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조계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군승제도를 개방적으로 포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함현준 법사는 "조계종이 단독으로 감당해 왔던 한국의 군승제도는 이제 그 문호를 확대 개방해 더 큰 변화와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군불교는 종단을 초월해 접근해야 한다. 계율의 문자적 준수에 경도되기보다는 자비와 이타행의 실천이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에 토대를 두고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확대할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경 함현준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오대산 태허 종영 스님을 은사로 득도(得度)하여 대강백 해룡 월운 큰스님에게 〈금강경〉을, 〈법화경〉의 대가인 회옹 혜경 큰스님에게 〈법화경〉을 사사하였다. 김포 명련사와 시흥 성원정사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다가 1994년 군종법사로 임관하였다. 그 후 30년간 전후방 각지 군포교의 현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하며 36사단, 21사단, 39사단, 11사단, 5사단과 3군단, 특전사, 교육사,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육군본부 군종실 군종법사, 제2작전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군종실장을 역임했다.

동화 속 인문학이 주는 '성찰'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
이일야 지음
담앤북스 / 1만6천8백원

〈동화가 있는 철학세계〉의 개정판
제목 바꾸고 초판에 없던 2편 추가
동화 속 인문학적 의미 재해석해

동화를 다시 읽는다. 인문학적으로. 그 동화들은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어릴 적에 읽었거나 들어서 알게 된 동화들이다. 이번에는 그 동화들 속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들을 함께 읽는다. 책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는 5년 전에 발간했던 〈동화가 있는 철학세계〉의 개정판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거나 새롭게 창작한 동화를 짧게 요약하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 인문학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했다.

"초판을 낸 지 5년이 흐르다 보니 지금의 상황과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내용도 있고 특히 젊은 MZ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책은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조금 수정했으며, 초판에 실리지 않았던 동화 2편을 추가했다. 추억 속의 동화 30편을 다시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와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동화에는 어릴 때 미처 읽어내지 못한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들었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와 초등학교 때 배운 동화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읽은 동화는 그야말로 인문학의 보물 창고였다. 동화를 다시 읽을 때마다 느꼈다.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이 책은 동화를 통해 각자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저자는 매달 한 편씩 동화를 해석하면서 동화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는 동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들려주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저자는 단순히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넘어 '현대사회'와 '철학'이라는 렌즈로 동화를 들여다본다.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존재론적 삶'을 제안하고, 흥부와 놀부의 심리를 스피노자가 말한 '질투'의 정의에 비춰 해석하고,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는 동양의 고전 〈중용〉에 담긴 '성실'의 가치로 읽어낸다.

책은 2부로 구성됐다. 1부 '마음 읽기'에서는 행복, 사랑, 오만, 욕망, 질투, 공감 등의 키워드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백설공주'에서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흥부와 놀부'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동화 '도깨비감투'를 읽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요술 맷돌'을 통해 독식은 곧 공멸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는다.

2부 '관계 읽기'는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관계를 동화에 비추어본다. '여우와 두루미'에서는 배려 없는 사랑은 곧 폭력임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어 '피노키오' '두 친구의 새끼줄' '숨어 사는 박쥐' '호랑이와 곶감' 등의 동화에서는 정직, 존중, 책임, 협동, 성실, 시비, 거짓말 등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인문학은 '자기 성찰학'이라고 한다. 자신과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공부다. 동화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다.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났던 '인생 지도'이자 '인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쓴 동화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동화라는 거울에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보면, 오늘을 살아갈 마음의 힘은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과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쉽고 재미있게,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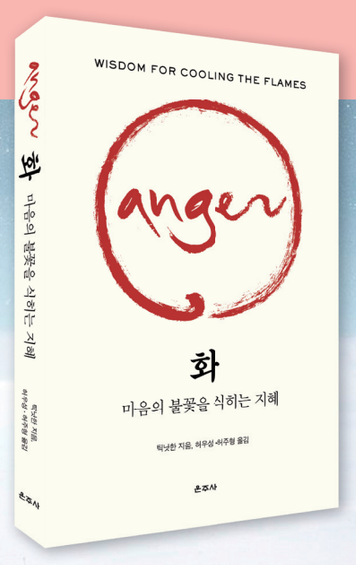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을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실천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192쪽/값 20,000원

틱낫한 스님의 『화』, 20여년 만에 온전하게 번역되다!
원서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비로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접하게 되었다!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anger



화, 절망,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르침!

'화'의 본성을 이해하고 '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외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 허주형 옮김/국판변형/252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